"국가 폭력에 의한 죽음 사과받고 싶다"

1982년 광주서부경찰서 조사중 숨진 문영수씨 유족
경찰 구타 사망 가족에 연락않고 시신 해부용으로 처리
배상 판결 받은 후 "경찰총수가 사과하라" 장례 거부

전남대 의대 추모관에 안치된 문영수씨 유골.

"형님이 사망한 지 벌써 29년이 흘렀습니다. 언제쯤이나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를 수 있을지…."

문덕수(56·강원도)씨는 아직도 형(문영수·당시 29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날의 충격을 잊을 수 없다. 문씨와 가족들은 1982년 8월 이후 연락이 끊긴 형을 찾기 위해 전국을 찾아다녔다. 그리고 5년 만인 1987년 5월 치안본부의 '헤어진 가족찾기 캠페인'을 통해 형의 시신이 화장돼 전남대 의과대학에 보관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형의 사망소식에 이어 문씨를 더 놀라게 했던 사실은 형이 1982년 8월 경찰서에서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의 폭행에 의해 사망했다는 것이었다.

또 사망 이후 당시 광주시 북구청이 적법한 장례절차도 없이 행려 환자로 분류, 전남대 의대에서 해부학 실습 시신으로 사용됐다는 소식을 알게 된 뒤에는 치밀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문씨는 곧바로 형의 사인규명을 요구하며 치안본부와 광주지검 등에 진정을 했고, 당시 전남경찰국과 광주지검이 사건을 맡았다. 1987년 9월 광주지검은 형을 수사했던 최모 순경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사체은닉 등으로 구속 수사했고, 광주지방법원은 최 순경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했다.

이후 문씨 가족의 기나긴 싸움이 이어졌다. 생면부지의 타향에서 경찰에 의해 비명횡사했고, 시신 조차 거두지 못한 형에 대한 마지막 사랑을 다하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600여일간의 천막농성을 진행했고 지난 2000년 1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을 내기도 했다.

1기 위원회에서는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없다며 기각됐지만 지난 2004년 2기 위원회에서 비로소 "피해자가 광주서부경찰서 형사에 의해서 광주적십자병원에 행려 환자로 처리된 점, 또 사망해 행려사망자로 처리된 점, 검사의 사체처리 지휘 이전에 사체가 전남대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에 인계된 점 등 피해자 사후에 위법한 공권력 행사가 있었다"고 인정을 받았다. 2009년 11월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국가는 사과하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위로와 적절한 구제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결정을 내렸고, 지난해 5월에는 국가를 상대로 승소해 3억7000만원의 배상판결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형이 사망한 지 29년이 지난 지금도 문씨의 가족들은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 문씨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가 나온 지 2년이 지났지만 경찰청과 광주시 북구청, 전남대 의과대학 등이 공식적인 사과는 물론 제대로 된 장례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문씨는 "지난 10월 광주서부경찰에서 강원도에 있는 나에게 서면으로 사과문을 보냈을 뿐이다"며 "이 사과문으로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들켰다

광주시교육청 학생수 부풀려 예산 편성
시의회 심의에서 드러나 전액 삭감돼

광주시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학생 수를 부풀리거나 기초수치인 기준 단가를 제대로 산정하지 않는 등 예산을 졸속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 교직원 업무경감비 11억8500여만원과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8억9000여만원 등 모두 32건 39억7000여만원을 삭감했다.

시 교육청은 학습준비물과 교과서 지원비 등을 산정하면서 초등학교 학생 수를 현원보다 10%가량 많게 편성했다.

초등학생 학습준비물에서는 1만3000여명을, 교과서 지원비에서는 8000여명이 현원보다 부풀려졌다. 중학생 도서비 지원에서도 570명이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파악됐다.

학생 수는 학급수와 함께 예산 편성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인데도 시 교육청과 동·서부 교육청, 직속기관 등의 기초 산출단가도 제각각이었다.

교직원 업무경감비의 경우 시 교육청은 1년(2012년 366일)을 계산해 예산을 편성했지만, 교육위원회는 교사들이 쉬는 방학기간의 경우 업무경감 요인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방학기간을 제외한 1년에 275일로 계산해 예산 11억8500여만원을 삭감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지역 교육청에서 일부 잘못된 기초자료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일"이라며 "의회와의 상의를 거쳐 학생 수 등을 조정했다"고 해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나원참 〈8453〉 김종두

식당 빌려 수천만원대 화투·윷놀이 도박

순천경찰, 25명 검거

순천경찰은 5일 수천만원대 판돈을 걸고 화투와 윷놀이 등 상습 도박판을 벌인 25명을 상습도박 혐의로 붙잡아 이 중 서모(48)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머지 19명은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지난 3일 순천시 모 가든의 방을 빌려 10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판돈을 걸고 윷놀이 도박과 화투를 사용해 속칭 '오이쪼이' 도박 등 3300만원 상당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서씨 등 3명은 도박판 개설을 위해 노름꾼 22명을 모집한 후 팀을 나눠 윷놀이 1판당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돈을 걸게 하고 이기는 팀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도박판을 개장해왔던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1억원 빌려 안 갚은 방송인 강병규 수사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백종우 부장검사)는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야구선수 출신 방송인 강병규(39)씨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높은 이자를 쳐주겠다며 한모씨로부터 1억여원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강씨는 "2008년께 필리핀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롤링업자 한씨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이 아닌 도박자금으로 빌린 것"이라며 "미화 13만5000달러 상당을 칩으로 받았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사랑의 김장배추 수확 5일 광주시 북구청 직원들과 북구농업경영인연합회 회원들이 월출동 금당마을 밭에서 배추를 수확해 차량에 싣고 있다. 밭주인 송복덕씨가 배추 전량을 기증했으며 수확한 배추는 중흥3동과 매곡동 등 5개동에서 김장김치를 담가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된 계층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어린이집 불법 매매 일제 점검

법인 어린이집을 수억원을 받고 매매한 사건〈광주일보 12월 5일 6면〉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5일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내년 1월31일까지 전국 약 1580개 어린이집을 지도점검한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이나 교사를 허위로 등록하고 보육료를 부정수급 여부, 화재예방 안전점검, 비상재해 대피시설 확인 등 동절기 대비 어린이집 운영현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매매가 금지돼 있는 법인 어린이집 운영권을 불법적으로 거래하거나 민간인이 운영하는 가정어린이집의 권리금과 인가증을 매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벌인다.

복지부 점검 결과 법인어린이집이 불법매매로 적발된 경우 매수자는 대표자 변경인가가 취소되고 매도자는 사회복지사업법(제53조) 위반혐의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벤츠 여검사' 체포 … 부산지검 압송

특임검사팀, 보안 고려 '007작전'… 오늘 영장청구

'벤츠 여검사'로 불리는 이모(여·36) 전 검사가 5일 오전 검찰에 전격 체포됐다.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오전 8시쯤 이 전 검사를 서울 자택에서 체포해 부산지방검찰청으로 호송한 뒤 오후부터 본격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4일 이 전 검사에 대해 알선수뢰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이 전 검사 조사를 전담할 선배 여검사인 정수진(37·사법연수원 33기) 서울 남부지검 검사를 지난 2일 차출했다.

이 전 검사는 부장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의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청탁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거론된 금품에는 벤츠 승용차, 샤넬 핸드백, 법인카드 등이 포함된다. 검찰은 또 체포영장 집행시한(48시간)을 고려해 6일 저녁 이 전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체포와 호송은 007작전을 방불케 했다. 이 전 검사는 이날 오전 7~8시 서울 자택에서 전격 체포됐다. 당초 이보다 낮은 수위인 소환조사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검찰은 지난 4일 알선수뢰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검사가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있고, 소환을 통보할 경우 여성인 이 전 검사가 정서적으로 불안한 부분이 있는데다 조사의 신속성을 위해 체포를 선택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연합뉴스

이창재 특임검사팀 관계자가 5일 호송차에서 내리는 이 전 검사를 검찰로 압송하고 있다.

"지각·결근비 내라" 다방 종업원 갈취

광주동부경찰은 5일 다방 여종업원을 협박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뜯어온 광주 모 폭력조직원 최모(29)씨와 이모(28)씨를 공갈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 중순 사이 광주시 북구 임동에서 다방을 운영하면서 지각이나 결근한 여종업원 정모(여·20)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벌금 명목으로 35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씨 등은 피해자가 늦게 출근하거나 다방에 나오지 않을 때마다 지각비와 결근비를 부담시키고 주먹까지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한 뒤 사전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남친에 시비 건다' 주먹 휘둘러

쌍나팔

○…술에 취해서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시비를 건다며 주먹을 휘두른 10대 여성과 이에 맞서 폭력을 행사한 20대 남성이 나란히 경찰서행.

○…5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백모(19)양은 지난 4일 오전 8시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모 노래방에서 종업원인 자신의 남자친구(23)를 나무란다며 손님 손모(26)씨의 뺨을 때렸고, 손씨도 화가나 백양의 뺨을 때렸다는 것.

○…백양은 경찰에서 "남자친구가 보고 싶어 찾아갔는데, 손님들이 힘들게 일하는 남자친구에게 너무한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폭력을 행사하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대학편입 정원 대폭증가!
2013학년도 대학편입을 위한 초석다지기 과정,편입개론과정 대개강!
편입 1:1 문자상담 : 010-7766-1254
수능결과를 뒤엎는 또한번의 찬스!!

재수	vs	편입
1학년입학 / 4년재학	졸업시기	3학년입학 / 2년재학
고등교과목 전과목 (약 16과목)	준비과목	영어(인문) / 영어,수학(자연)
각 군별 1회 지원	복수지원	대학별 지원(최다 20회 이상 복수지원 가능)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김영편입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062)227-8088
www.kimyoung.co.kr 개강 :12월 19일